

‘3저 시대’ 올라탄 초유의 호황… 우직한 긴축 덕분

사공일 회고록

경제국정, 이랬다 8

돌이켜보면 1983년 10월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 업무를 시작한 후 85년 상반기 까지, 첫 1년 반은 정말 힘든 기간이었다. 한마디로 ‘창업(創業)보다 수성(守成)’이 어렵다’는 말의 뜻을 되새기는 때였다.

80년대 초반에 시작된 정부의 물가안정과 경제안정화를 위한 초긴축 정책기조에 대한 업계와 정치권의 비판적 목소리는 처음부터 있었다. 그런데 이듬해 12대 총선을 앞둔 84년도의 예산을 동결하고, 공무원 봉급과 추곡수매가를 동결하는 등 정부의 초긴축 시책이 이어졌다. 그래서 특히 정치권의 비판과 반발은 더욱 커져 갔다. 이러한 정부의 경제 국정 중심에서 대통령을 보좌해온 김재익 경제수석에게 화살이 집중됐다. 이때 김 수석 후임으로 내가 경제수석에 취임한 것이다. 온갖 직간접 회유와 압력이 나에게 몰려올 것은 예상된 일이다. 게다가 80년대 들어 40%를 웃돌던 물가가 82년에 2% 대로 떨어졌다. 이제 정부는 긴축정책을 그만둘 때가 됐다는 주장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당시 나는 앞으로 상당 기간 정부의

안정화 유지 필요할때 경제수석 취임
85년 수출량 줄고 청년 취업난 극심
경기부양책 마련 목소리 점점 커져
외부 압박에도 대통령은 안정 의지

안정화 의지가 흔들려서는 안된다고 믿고 있었다. 경제개발 초기부터 20년 이상 뿌리 박혀온 한국 사회의 만성적 ‘물가 오름세 심리’때문이다. 잠시 한 자릿수 물가를 달성했다는 것만으로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봤다. 실제 일반 국민 사이에 ‘소 뒷걸음치다 쥐 잡았다’는 식의 회의적 시각이 많았다.

83년 12월 초 전두환 대통령에게 84년도 경제정책 전반에 관한 내 시각을 정리해 보고했다. 긴축기조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리고 ‘개방과 자율’의 확고한 원칙 아래 민간주도 경제를 향한 금융 자율화와 수입 자유화 촉진, 그리고 대외개방 시책을 적극 추진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행히도 84년의 대외 여건은 우리의 안정화 시책 유지에 도움이 됐다. 미국과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이 일시 호황을 맞았고, 아울러 세계 전체 교역량이 크게 늘어났다. 따라서 정부가 나서 적극적인 경기 진작 시책을 펴야 한다는 큰 목소리는 없었다.

그러나 85년이 되자 사정은 달라졌다. 미국·일본 등 선진국 경기가 다시 부진해졌고, 세계 전체 무역량도 줄어들었다. 그 결과 선진국, 특히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추세가 강해지기 시작했다. 한국의 수출은 저조할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대학 졸업 정원이 배로 늘어남에 따른 청년 취업난이 더욱 심해졌다. 긴축 기조를 대폭 완화하고, 건설경기 진작 등 경기부양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마저 나온 배경이다.

물론 이러한 내용이 직간접 경로를 통해 대통령에게 전달될 것은 당연하



1985년 미국을 방문한 전두환 대통령은 4월 26일 백악관 올드패밀리리아닝룸에서 열린 오찬에서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조지 솔츠 국무장관 등과 남북 문제, 경제 협력 등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전 대통령을 수행한 사공일 경제수석은 미국 대통령 경제자문위원장이던 베릴 스프링클 박사 등으로부터 세계 경제 호전 예상을 듣고 긴축 기조 유지를 다짐했다. [중앙포토]

다. 그럼에도 12대 총선을 앞둔 84년까지도 전 대통령의 안정화 의지는 굳건했다. 그러나 나중에 대통령 재임 7년간을 회고하며 이 즈음이 “본인으로서 가장 어려운 선택의 시기였다”고 한 바 있다. 확고했던 대통령의 안정화 의지가 흔들릴 뻔한 것이다.

대통령은 내 의사를 수시로 재확인했다. 그럴 때마다 일관되게 아직은 정부의 안정화 기조의 틀을 깰 때가 아니라고 답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직은 대통령의 의지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다만 안정기조의 큰 틀은 지키되, 어느 정도 탄력적 금융정책 운용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즈음 국제통화기금(IMF)·국제부흥개발은행(IBRD) 등 국제기구와 미국의 유수 연구기관은 85년 하반기부터 국제 유가의 하락 등 경제 여건이 호전할 것으로 예측하고 나섰다. 마침 전 대통령의 미국 공식 방문(85년 4월 24일~29일) 수행 중에 나는 미국 정부 고위 인사들의 낙관적 개인 의견도 들을 수 있었다. 특히 대통령 경제자문위원장이었던 베릴 스프링클 박사의 의견도 들었다.

이러한 세계경제 호전을 전제로 85년 상반기 중에 경제기획원·재무부의 실무자, 한은·무협의 전문가들과 함께 청와대에서 여러 차례 비공개 토의도 했다. 세계경제 여건이 호전될 때를 대비해 구체적 시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이때 “서퍼(파도타기 선수)가 미리 파도가 올 것을 내다보고 바다에 들어가 있어야지, 파도가 왔을 때 나가면 이미 늦다”는 말을 자주 한 생각이 난다.

그리고 당시 신병현 부총리 겸 기획원 장관과 김만제 재무부 장관을 여러 차례 만나 의견을 교환했다. 세계경제 여건 호전에 미리 대비하자는 데 합의했다. 특히 재무부 차원에서 여러 금융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그 후 기업 설비 투자와 수출 촉진에 도움이 될 기업 여신 규제 완화, 수출금융 확대, 설비금융

기준 완화, 수출 단가 상향 조정 등 다양한 정책이 연이어 나오게 됐다.

이즈음 어느 날, 대통령이 나를 다시 불렀다. 일본의 유명 기업인을 만났는데 그가 “이제 한국 정부도 일본 정부처럼 국채를 발행해 대규모 토목 공사를 하는 등 정부 재정지출을 늘려 경기 부양을 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전했다. 전 대통령은 이에 대한 내 의견을 되물었다.

우선 대통령에게 한국과 일본의 큰 차이점부터 설명했다. 국민이 저축을 많이 하는 일본과 국민 저축률이 낮은 한국의 정책 여건 자체가 다르다. 당시 재정 적자의 일본 정부는 저축을 많이 하는 민간 부문으로부터 돈을 빌려 충수요를 진작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와 함께 민간 부문도 저축이 부족한 한국은 사정이다. 정부가 민간 부문으로부터 빌려쓰면 민간이 쓸 돈이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충수요 진작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설명한 것이다.

더욱이 85년 하반기부터 미국을 위시한 세계경제가 나아질 것으로 예측되는 이 시점에서 재정지출을 통한 경기부양책은 더욱 바람직하지 않다. 다만 경기 진작에 도움이 될 금융 부문의 완화 시책은 가능하다. 여기에 기업설비 투자와 수출 촉진을 위한 일부 조치는 이미 시작됐음을 덧붙였다.

바로 이때 미국 콜로라도의 애스펜연구소로부터 8월에 열릴 회의에 참석해 달라는 초청이 왔다. 세계경제 현안에 관한 논의를 위해 미국과 주요국의 최고위급 인사 20여 명만 참석하는 비공개 회의였다. 이 회의에는 미국의 폴 볼커 연준(Fed) 의장, 로버트 맥나마라 전 국방부 장관(전 세계은행 총재), 빌 브래들리 상원의원, 앨 고어 상원의원(미 부통령 역임) 등 전현직 최고위급 인사들이 참석했다. 아서 덴켄 GATT(현 WTO) 사무총장과 푸산 중국세계경제연구소장 등이 초청됐다. 이틀간 이곳 애스펜에서 숙식을 같이하며, 입장 교

환과 상호 친교를 쌓을 기회가 됐다.

경제수석은 대통령의 외국 방문·수행 이외에 개별적으로 해외 출장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그러나 전 대통령은 이렇게 주요 참석자들과 개인적 친교를 쌓을 수 있을 뿐 아니라, 한국 경제의 실상과 정부 정책을 소개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니 참석하라 했다. 이 회의에서 나는 한국의 안정화와 대외개방 시

마침내 힘 발휘한 경제 안정 정책
긴축기조 큰 틀서 탄력적 정책 운용
세계 3저 놓치지 않은 한국 경제
개인도 국가도 운은 준비된 자의 몫

책을 소개하고, 미국과 선진국의 보호무역주의 철폐 필요성을 제기했다.

나중에 안 사실이 있다. 내 해외 출장 기간 중 전 대통령이 그동안 사적 경로를 통해 일본 기업인과 비슷한 경기 부양책을 건의해온 어느 전직 장관을 청와대로 불렀다는 것이다. 청와대 본관의 대통령 집무실이 아닌 대외 보안이 잘 지켜질 수 있는 경호실에서 비공식 보고를 받았다고 한다.

대통령은 그 자리에 문화감 기획원 예산실장과 이석재 청와대 비서실 경제비서관을 배석시켰다. 이들은 전직 장관의 의견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고 한다. 그것으로 회의는 끝났다. 회의 뒤 전 대통령은 그날 일은 없었던 것으로 하고, 나에게서는 물론이고 대외 함구를 엄명했다. 나는 이 일을 몇 달이 지난 뒤 안현태 경호실장이 귀띔해줘 알게 됐다.

나는 그 이후 2년 가까이 더 경제수석 업무를 이어갔다.

고진감래(苦盡甘來)라 했던가. 그동안 온갖 고통에도 우직스럽게 고집해온 정부의 경제안정화 정책과 세계경기 호전에 대비한 시책들이 힘을 발휘했다. 85년 9월 플라자합의(Plaza Accord)에 따른 저달러와 저유가·저금리로 세계는 3저 시대를 맞았다. 한국 경제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86년부터 ‘세 마리 토끼’(성장·물가·국제수지)를 잡는 사상 초유의 호황을 누리게 됐다. 이를 기반으로 한국은 후일 ‘중진국 함정’에 빠지지 않고 선진국 반열에 올라설 수 있게 됐다고 본다.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도 ‘운은 준비된 자의 몫’임을 잘 보여준다.



스마트폰 카메라 앱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The JoongAng Plus에서 연재 중인 [사공일 회고록: 경제국정, 이랬다] 시리즈를 더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1984년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열린 간담회. 왼쪽부터 필자, 안승철 KDI 원장, 남상우 KDI 수석연구원, 홍재형 청와대 비서관. [사진 사공일]

